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오늘은 맥추감사절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예식, 저녁에는 맥추감사 찬양예배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우리 교회는 지난 반년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종일 감사와 축제날로 지내게 된다.

주일 낮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절 특별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다.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해방 50주년을 맞는 의미깊은 해에 맞이하는 맥추감사절이

나만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간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자체 선거와 대형사고로 인하여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맞이하는 이번 맥추감사절에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학교에서는 자체 내에서 축하행사를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탁아부,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감사절 축하행사가 있다.

교회학교의 여름행사

· 『변하는 세상, 변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로 ·

우리 교회는 해마다 개최해오던 전교인 여름 가족수련회를 올해는 갖지 않는다. 대신 교회학교의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각 부서별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8일(수) 당회의 승인을 얻었다.

올해 여름행사의 주제는 「변하는 세상, 변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7일(월)에 당회원 수련회를 시작으로 18일(화)부터 3일간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가 교회당에서 개최되며, 한국중앙수련원에서 갖는 중등부 수련회는 7월 24(월)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순례를

통해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가질 고등부 수련회는 장소는 아직 미정이나 8월 14일(월)부터 2박 3일간 가질 예정이며, 대학부는 8월 8일 완택산 기도원에서, 청년부는 13일(주일)부터 강화도에서 각각 3박 4일간 가질 예정이다.

소망부는 8월 중순에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가질 것이며 사랑부는 7월 20일(목)에 성경학교를 연다. 탁아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7월 8일에 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회학교 외에도 찬양대 혹은 전도회나 구별로 행사들을 마련하여 집중적인 영성훈련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교회학교의 여름행사 계획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유치부	김경아 전도사	7월 18일(화) - 20일(목). 3일간	교회당
유년부	최병호 목사	7월 18일(화) - 20일(목), 3일간	교회당
초등부	박종상 전도사	7월 18일(화) - 20일(목). 3일간	교회당
중등부	김재호 목사	7월 24일(월) - 27일(목), 3박 4일간	한국중앙수련원(포천)
고등부	김용진 전도사	8월 14일(월) - 16일(목), 2박 3일간	미정
대학부	원 호 목사	8월 8일(화) - 11일(금), 3박 4일간	완택산 기도원(영월)
청년부	이만열 전도사	8월 13일(주일) - 16일(수), 3박 4일간	강화도
소망부	전호진 목사	8월 중순, 2박 3일간	미정
사랑부	임진태 목사	7월 20일(목)	교회당
탁아부	김경아 전도사	7월 8일(토) - 교사수련회	교회당
장년부		계획 없음	



여름 성경학교에 앞서 가지는 교사 강습회

7월 4일 - 교사 전체
7월 5일 ~ 8일 중, 교회학교별

교육위원회(위원장: 정병부 장로)는 다가오는 각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교사 강습회를 2차에 걸쳐 가지기로 하였다. 교회학교의 교사 전원이 한자리에서 갖게 되는 7월 4일(화)의 제1차 강습회는 사미자 교수(장신대)가 발달심리에 관한 강의를, 이종윤 목사가 주제 강연을 한다.

7월 5일부터 8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갖는 제 2차 강습회는 교회학교별로 날짜를 정하여 효과적인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진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사훈련을 한다.



- 제 1차 강습회: 7월 4일(화)
제 1교시: 오후 8시 ~ 9시 / 발달심리
강사: 사미자 교수(장신대)
제 2교시: 오후 9시 ~ 10시 / 주제특강
강사: 이종윤 목사
- 제 2차 강습회: 7월 5일 ~ 8일 중

맥추감사절 메시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주옵소서”

임진태 목사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이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로도 불리웁니다. 이날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다시 말하면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이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며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한편 애굽에서의 해방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해방의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웃과의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분단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이라는 단어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으며 많은 사람이 이 분단의 벽이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안타까운 민족 분단의 상황 속에서 맥추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복음의 기쁜 소식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음을 맥추절을 통하여 기억하듯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의 사슬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 기쁨을 이복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복의 동포들이 식량문제보다 먼저 말씀의 기갈로 허덕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여! 이 해방의 기쁨이 이복의 동포들에게도 미치게 하옵소서.”

둘째, 나눔의 정신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맥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 고아들, 레위인들을 초대하여 공동 식사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맥추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해방의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나눔의 정신이 흘러 넘쳐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날은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동포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으로 이웃과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제 이웃과 이복의 동포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이 민족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우상숭배 등 수많은 죄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안보는 우리 군이 가진 군사력이 나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한반도를 붙들고 섬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칠 때 그것은 곧 복된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맥추절을 지키므로 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형제간의 책임의식이 따르게 됩니다. 분단 50년이 되는 해에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이웃,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감사와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소유와 삶

가진 것이 없이도 의미있게 인생을 살다간 사도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그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갖고 인생을 산 이들도이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값지게 산 이들의 표본이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인생을 살다간 헤롯 대왕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는 일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추구하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뿐이었으니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을 리 없고 더구나 감사와 보람은 찾을 수 없었다.

소유가 적다는 구실로 봉사할 기회를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인생의 성패가 그 소유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바쳐 오천 명을 먹게 한 소년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겐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다.

'95 홍해작전 승전일기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오승민 (2교구)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번번히 깨지곤 하는 이 결심 앞에서 스스로 실망하던 저에게 주님께서서는 예정하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새벽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내 눈을 뜨게 하였고 매일 아침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우리다하는 각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크신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이 행진에 발 맞추게 하시고 영적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젖은 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 예비된 7천명의 남은 자와 같은 우리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해작전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앞에서 이 광야의 삶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순종으로 승리하며 자기를 죽이고 거룩을 이루어 허락하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

“내 입을 크게 열고”

황선호 (1교구)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나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유난히도 불도가 강한 종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시련이 따른다. “영적 각성과 창조질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95홍해작전은 이러한 기도제목을 가진 나에게서는 누구보다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게 했고, 20일간의 행진은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1978년 어느 따스한 봄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의 신앙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에 나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출석에 불과했다.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열 곳도 넘게 방황하였다. 도무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 성경의 내용이 미신과 과장에 찬 것 같아만 보였으며 교회는 위선자들의 모임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물 위를 걸어왔으며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다는 사실들이 모두 미신이나 단순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95 홍해작전의 20일간의 행진을 마치면서 승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장신대원 중창단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6월 새가족 환영회와

우간다 선교사로 수고하던 임정이 선교사의 귀국 인사.

새롭게 파송받는 이미경 선교사의 인사도 있었다.

1993년 첫 주일부터 서울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지난 날 믿지 못하던 것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었다. 특별히 그 해의 홍해작전은 내 신앙의 일대 전환이 되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5일간 지속된 '93홍해작전을 통해 내 생활의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게 되었고,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불신 가족과 친척에게 알리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신행일치의 삶을 결심하게 된 '93홍해작전을 마친 한 달 뒤에 아버님의 제사날이 다가왔다. 때마침 형님 내외분이 외국에서 귀국하지 못했고 차남인 내가 제문을 읽기 전, 술을 따르고 절을 해야하는 순서가 왔다.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사해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집안 어른들로부터 날벼락이 떨어졌고 그날의 제사는 제문도 읽지 못하고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 후로는 명절이나 제사날 우상숭배의 자리에 우리 부부는 열외였고 원성은 먼저 믿은 내 아내에게로 다 돌아왔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가정은 '95홍해작전에 비장한 각오로 임했고 교역자님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내 앞에 놓인 문제의 해결은 기도 뿐이라고 믿고 홍해작전에 임하여 열심히 기도하던 우리 가정에 낭보가 있었다. 외국에 있는 조카가 어떻게 설득하였는지 형님 내외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가정 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금년에 최초로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공동의학 연구팀에 의해 성공한 뇌세포 유전자 기능 정상화 치료 실험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우리 둘째 아이가 수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구한 기도제목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되리라 믿으며, 또 응답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신 것임을 믿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 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주님 앞에서 새벽기도회를 생활화해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 생활 속의 이야기

“먼저된 자의 부끄러움”

유형석(집사, 제8교구)

제게는 오래된 포도주에 비유된 막역 지우가 하나 있습니다.

‘관우’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제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교회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년 전, 우리는 부부 동반하여 경주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석굴암에 이르자 제 친구의 부인이 시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도가 어렵겠구나’라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처는 오히려 전도해야겠다는 강력한 생각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친구의 마음 문을 열고 교회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신앙생활을 위해 동리 교회에 출석을 권유했으나 열심이 일지 않는다고 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 삼척에서 열린 가족수련회에도 함께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신앙이 점차 자라

고 드디어 지난 6월 21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제 신앙생활에도 큰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게 찬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전도사님, 새가족부 집사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해 준 제 처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제 친구가 제게 한 말을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왜 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느냐?”

■ 우리는 지금

36개월 이전의 어린이를 위한 탁아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없게 하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김시환(집사, 탁아부 교사)

언젠가 보석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나는 내가 가르치고 돌보는 아이들이 마치 보석과 같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보배’라는 말이 정말 걸맞다. 원석을 자르고 깎아 다듬고 또 모양을 내고 광을 내어 하나의 영롱한 완성품이 태어나듯 우리의 아이들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상에 빛나는 인격체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탁아부의 어린 생명들에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약속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34편 10절).

그렇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만 된다면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 농촌 전도단원 모집 ■

민족복음화를 위해 파송될 제 2차 농촌전도단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 파송기간 - 1995년 7월 31일(월) - 8월 2일(목), 3박 4일간
- 신청기간 - 1995년 7월 2일(주일) - 7월 23일(주일)
- 문의 - 전도위원회 (지도: 김재호 목사 ☎ 517-7651 ~ 5)

■ 교우동정 ■

최광성·이정연 집사 (2교구, 개나리 2다락방) 가정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구내식당을 확장개업하고 6월 26일(월)에 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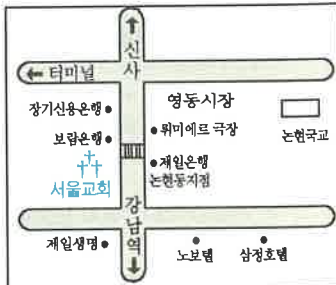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맥추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3.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 여름행사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